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소장품전 전시

호남 대표 작가 16인 작품 60여 점 전시... 지역 문화 체험·도슨트 참여로 소통 강화

보성군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 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조선대학교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을 선보이는 기획전 『Rebirth: Hidden Hitchhiking - 잠유유랑(潛遊流浪)』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시 컨설팅 전문기업 ㈜와사비아의 기획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선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협력과 보성군의 공간 지원이 결합된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 융복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에는 백민 조규일 화백 작품 3점과 조선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57점 등 총 60여 점이 전시되며, 호남을 대표하는 원로 및 중견 작가 16인의 작품이 포함돼 지역 미술사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제 '잠유유랑(潛遊流浪)'처럼 전시는 관람자가 작품·공간·타인과의 유연한 연결을 통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구성된다.

전시 동선은 미로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도슨트는 단순 해설자가 아닌 '동행자'로서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가 조선아도 직접 도슨트로 참여해 관람객과의 예술적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마련한다.

전시 개막 이틀간은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체험도 운영된다. ▲보성 특산 흑초를 활용한 조(醬) 문화 체험, ▲웰컴 티(Tea) 시음 행사, ▲전시 작품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 및 굿즈 제작,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캐릭터 생성 체험 등이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전시 해설 및 투어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와사비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전시 모델로, 보성이 문화예술 거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은 1993년 개관 이래 약 1,011점의 작품을 수집·관리해 온 국내 최초의 군립 미술관으로, 향토 문화와 예술 계승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보성/김문기 기자



'한 폭의 그림' 남도풍경 사진전... 13~20일 광주시청

남도풍경연구소가 그림 같은 남도풍경 이야기 개설 1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자연을 사진에 담은 온라인밴드 '남도풍경'은 오는 13~20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5 그림같은 남도풍경이야기 제3회 사진전'을 연다. 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신안군, 장흥군, 구례군이 후원하며, 남도풍경연구소가 주최한다.

특히 '중에게 다가가는 남도풍경'라는 주제 아래, 전문전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택했다. 선별된 50점의 작품은 일반 전시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초대형 크기로 제작돼 관람객에게 실제 풍경을 접하는 듯한 생동감을 전한다.

남도풍경 밴드는 지난 10년 간 광주와 전남, 전북의 숨은 비경과 계절의 흐름을

찾아 기록해왔다. 단순한 사진 공부를 넘어 장소별 최적의 촬영 시기와 위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사진가, 여행자 모두에게 '가장 신뢰받는 풍경안내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최근영의 그림같은 남도풍경이야기' 밴드에는 전국 8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 사진동호회 25만 여 명에게 매일 신선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소에는 28명의 연구위원과 30명의 홍보서포터즈가 활동하며, 남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영 소장은 "남도풍경은 단순한 사진 모임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호남 곳곳의 명소를 발굴하고 이름 붙이는 문화적 기록자로 활동해왔다"며 "이번 전시회는 보기 드문 초대형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수 기자

순천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기획전시 「순천의 유산을 담다: 순천 국가유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 국가유산 사진전, 사실의 기록과 예술

이번 전시는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 선암사, 순천갯벌」과 같은 기간에 열려,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채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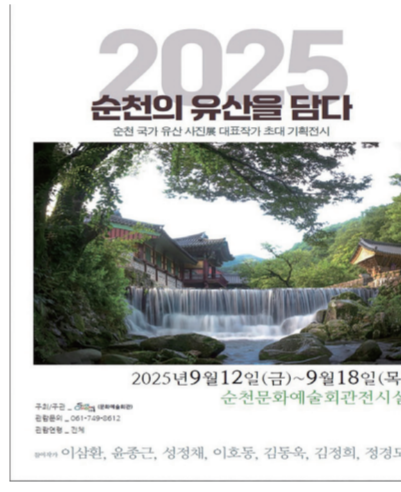
전시에서는 순천이 간직한 고유한 문화유산을 담은 사진 28점을 선보이며, 특히 선암사 화담 승중스님의 20년 전 촬영자 「삼보일배」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참여 작가는 순천시 사진 작가협회 소

속 대표 작가 7인(성정재, 김동욱, 정경모, 김정희, 이호동, 이상환, 윤종근)으로 각기 다른 시선과 감각을 통해 순천의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전시는 순천의 국가유산은 물론 과거의 일상적 풍경과 기억을 사진으로 담아 사라져가는 삶의 흔적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내 국가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3일부터 14일까지는 체험부스가 운영

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순천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관에서도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현장을 찾지 어려운 시민들도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시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문화예술회관(061-749-8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시가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꿈과 열정의 무대를 제공할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양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9월 26일까지 접수, 10월 18일 광양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본선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본선은 10월 18일, 광양 K-POP 페스티벌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예선은 동영상 심사로 진행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이며, 팀은 3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K-POP 댄스, 방승댄스, 스트릿댄스 3개 부문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댄스팀은 오는 9월 26일까지 5분 이내 영상을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과 함께 이메일

(winkers1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결과는 10월 1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본선 진출팀 10개 팀에는 K-POP 페스티벌 A석 티켓과 소정의 교통비(수상팀 제외)가 제공된다. 대회 총상금은 420만 원으로, 대상 200

만 원(1팀), 최우수 100만 원(1팀), 우수 70만 원(1팀), 장려 50만 원(1팀)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과 최우수 수상팀에게는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식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주 관사(☎010-2061-7869)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한국의 K-POP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회가 K-POP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뮤지션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는 글로벌 관광축제 '광양 K-POP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7일과 18일, 광양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화려한 라인업과 함께 이틀간 펼쳐질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농지
지가 있다면

농자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
금이 있습니다

농업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